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류정 권중숙(별장공파, 37세)

작년 8월 중순 경에 ‘태사문화회’를 통해서 [안동권씨대중회]에서 내게 작품 청탁을 해왔다. ‘2023 대전효문화뿌리축제’의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제1회 조상의 얼과 뿌리를 찾아서’란 시화공모전에 시화 한 편을 출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국 244개 분관 심심문중의 후손으로, 시인이며 화가인 작가를 각 2명씩 추천하여 달라는 요청이 왔다. 고려 건국 이래 대대손손 자가 양반임을 공인하는 자긍심 높은 우리 안동권문이 아니던가. 결혼 이후 출가외인이란 옛 법도를 따르느라, 문중 일에 등한시한 죄스러움을 다소라도 만회할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출품을 흔쾌히 승낙했다.

공모전 요강을 전해 받고선 무거운 책임감에 후회와 고민이 앞섰다. 주회 측이 요구한 작품 내용이 ‘시조(始祖) 탄생 설화 또는 문중의 자랑스러운 인물과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역사자료를 국가사에 거둬 나온 식상한 그림과 사진에 설명문을 쓴 작품이 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 한눈에 봐도 안동권씨 문중의 출품작이란 걸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독창성이 뛰어난 그림과 역사사의 강한 서사시가 어우러진 작품이어야 될 텐데...

고심 끝에 시조 권행 장군의 탄생 설화를 소재로 선택했다. ‘안동’이란 지명을 탄생시킨, 삼태사의 위대한 활약을 재조명할 ‘병산대첩’을 형상화한 작품 제작을 계획했다. 물론 삼태사 중 권태사의 지혜와 결단력, 용맹한 충성심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작품 제출 기한이 9월 5일이라 너무 촉박했다. 수도권에서 종합문화예술분야에서 활동하던 나로서 그즈음 개인사가 너무 바빠졌다. 안동에 내려가서 ‘병산전투’의 역사적 현장을 답사한 후 그림을 그리고 시를 구상해야 할 텐데..., 걱정하던 차에 근래 들어 내 고향 권문집성촌의 대소가나 문중 일을 도맡아 하시는 7촌 아재(36대 권기욱)가 생각났다.

전화로 행사 취지를 설명드리고 현장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보내달라고 기히 부탁드렸다. 77세의 아재도 현장을 정확히 찾았을 자신이 없으며, 안동에서 문중 일에 애착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85세의 친형 어른신을 모시고 가야겠다고 하셨다. 언젠 비바람이 일고 코로나도 힘든 시기가 답사가 어려우니, 며칠만 더 기다려달라는 아재의 연락을 받고서 조급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다.

8월 22일, 드디어 카카오톡으로 ‘병산대첩’ 유적지 사진(24장)과 병산대첩과 태사묘 유래 설명문(A4 4쪽 분량)이 도착했다.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 자료를 급히 살펴보면서, ‘어찌 이를 수가...!’하는 절절함이 났다.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어봐도 그 놀라움은 가시지 않았다.

내 지금껏 안동권문의 딸이란 긍지를 갖고, 정렬결백하고 조신하게 때로는 정의를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왔는데... 그간의 자긍심이 허물어질까 위기가감이 느껴졌다. 지금 안동 땅에서, 삼태사의 유래와 안동권씨 문중의 원뿌리인 고려사 속의 최고(最高, 最古)의 유적지인 ‘병산대첩’ 현정이 고사(枯死) 직전에 봉착했음을 직감(直感)했다. 실망 속에서도 현장 사진을 앞에 놓고 보름가량 고려인의 심정이 되어보고자 했다. ‘병산대첩’을 상상하며 그리고 고치고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반추상화에 서사시를 엮어 시화제작을 마쳤다. 배너형식의 전시라기에 실력과 사진작가 스튜디오에 가서 작품사진을 선명하게 찍어서 기한 내에 주회 측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인사동의 큰 스승님들도 터 문중의 뿌리를 확실히 모르니 조언조차 하

시기 어렵다 하셨다. 대도시에서 활동하는 황혼기의 일반여성이, 자기 본관성씨문중에 대한 내력과 애정이 이처럼 깊은 경우가 드물다며 잘 해보라는 격려와 신뢰를 보내주셨다. 문중 대표로 참가한다는 의무감에 심사결과를 기다리며 주회 측에 몇 번 문의해 봤지만 일정이 미루어지길 거듭했다.

뒤늦게 뿌리축제의 모바일 초대장이 도착했다. 입상한 작품 57점으로 시화전시회를 개최한다. 기대한 상위 입상이 아니라서 주회 측 책임자에게 그 이유를 전화로 문의했더니 ‘몹시 죄송하다.’는 답변만 거듭할 뿐이다. 후문에 의하면 각 문중에서 시인들을 추천했더니,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없으며 공모전 요강을 재고(시, 시조 작품만으로 평가)해 달라고 해서,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 모양이었다. 내 작품을 놓고 몹시 열가알부한 듯하다. 대전시가 후삼국 시대의 후백제 땅이었으니, 자신들의 주군인 견훤 대장군이 고려의 젊은 장수 왕건에게 참패당하고 도망가는 ‘병산전투’ 시화를 높이 평가하고 싶었겠는가.

더군다나 고려 왕건을 주군으로 모시고 ‘병산전투’를 암습시킨 선봉장 권행 장군의 후손이 출품한 작품이 아니던가. 그 지역 문인협회 심사위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나니 두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다. 문화예술 부문까지 영향을 끼치는 지역감정의 뿌리가 너무 깊어 국민들의 고질병이 됐다든 서글픈 감정, 시화를 제작하면서 ‘안동



병산대첩지로 추정되는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병산일대

시’란 지역의 원천(源泉)이, ‘병산대첩’이었다는 점을 재조명시키겠다던 나의 제작 의도가 적중했다는 생각에 기분이 흐뭇해졌다.

일단 내 작품이 전시되었다니, 10월 13일 날 뿌리공원 축제 오프닝에 참석하기로 했다. 전시작품을 평가도 할 겸 인사동에 활동하는 작가 몇 분과 동행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안동출향민인 ‘재경안동시내향우회’ 권태운 회장님께도 급하게 연락해서 모시고 갔다. 회장님께서 공사 다망해서 시간 내기 어렵다 하셨지만, [안동권씨대중회]의 일이나 꼭 가셔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권했다.

권회장님(33세)은 안동시내 종가대 직계 손의 막내아들로 태어나 성장기에 문중 활동 체험이 많았고 선전까지 독립투사였기에, 내가 의무와 책임 운운하는 말에 동감을 표하셨다. 평소에도 나와 보수적인 가치관이 상충했고, 재경 동문회, 항우회 등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꼭 유지했었기에 매사 제쳐두고 대전까지 동행해주셨다. 뿌리공원 내의 여러 축제장을 둘러보니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았다. 공원중합 안 내관 앞에 네 식구가 손을 잡고 다정히 서있다. 빼곡히 적힌 244개 ‘본관성씨문중표’를 훑어지게 바라보며 자신의 본관 성씨를 찾아 어린 자녀들에게 설명해주는 젊은 부부의 표정에서, 깊은 뿌리의 긍지와 자존의 기쁨이 넘칠대고 있었다.

야외 시화전시장을 둘러보니, 애초의 공모전 취지대로 제작된 작품은 네댓 작품(‘병산대첩’ 포함)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그림이 없고 사진을 찍어 바탕전에 희미하게 인쇄해서 그 위에 서정시를 쓰거나, 지루한 설명을 붙인 시화들이었다. 나는 배너형식으로 작품을 꾸며서 야외전시를 가급려 경험에 있어서 그런 시화제작의 요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동행한 작가들도 내가 비록 상위 입상은 못했을망정 내 작품이 꽤 우수하다고 인정해주었다. 주회 측의 처사에 서운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축제를 즐기며 공원을 산책했다.

넓은 공원의 102번 위치에, 안동권씨 조



태사묘

형물이 있었다. 좌대에는 성씨 탄생 유래와 간단한 설명이 써여져 있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손히 참배를 올렸다. 일행들이 자신들의 선조님을 찾아뵙러간 사이 권회장님과 함께 시조님 옆의 풀밭에 앉아서 긴 얘기를 나눴다.

이번 시화제작을 통하여 발견한 안동시-고려사문화유적관리 문제점을 안동시청과 시의회, 관련단체에 알려서 미래지향적인 시책을 강구하길 건의하기로 했다. 나는 사업계획의 아이디어 제공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 종합문화예술부문의 실천에 참여하기로 했다. 권회장님은 관련기관의 관계자들과 신속 접촉하여 추진위원회구성 촉구, 예산 확보와 빠른 사업추진에 적극 앞장서 주기로 언약하셨다. 수도권에 거주하시지만 투철한 애국, 애항심으로 수시로 고향을 방문하여, 지역의 제반 문제에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신 권회장님이 맡아주신다니 몹시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상경 후에 곧바로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을 위해서 안동시청과 시의회, 관련 단체와 시민들의 관심과 반향을 이끌어낼 방안을 구상하여, 단계적 실천계획을 세운 후에 곧바로 실행에 들어갔다.

1단계 계획실행: 2023년 11월 13일, ‘안동-역사문화탐방단’(45명) 안동 탐방

수도권 소재(특히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중심지로 활동하는) 각 미술단체 임원진 및 미술애호가들로 ‘안동-역사문화탐방단’을 구성해서 현지 탐방을 실행했다. 내가 주관자로 탐방단 모집과 사전 안내 및 준비를 맡았다. 권회장님이 ‘재경안동시내향우회’ 임원의 개인 후원을 받아 관광버스를 예약, 안동시청과 농협 측 그 외 현지 관계자들의 협찬을 받아낸 후 당일 여행일정을 짜고 인솔책임을 맡아주셨다.

뿌리공원에 다녀온 후 한달 만에, 개인사 바쁘고 자존감 높은 미술계 중진들의 동참을 어렵사리 이끌어내면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접했다. 안동에 연고가 없는 일반 수도권 사람은, 안동은 가보고 싶은 곳이지만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여기서 안동시의 역사문화관광산업 발전방향 재고(再考) 및 홍보전략 부진을 발견했다. 그런 문제점들의 시정을 위해서는, 깊은 역사사식의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넓은 안목(眼目)을 가진 지자체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탐방단의 큰 관심을 모았던 ‘태사묘’를 둘러본 나의 감회는 한 마디로 실망스러웠다. 특히 굳게 잠긴 유물각의 유물이 수리를 위해 ‘안동국학진흥원’에 보관된 지 3년여가 넘었건만 아직도 찾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안내문을 읽고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여러 탐방객들의 마음을 오�히려 내가 달래드렸다. 다음 기회에는 꼭 관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빠른 보수를 촉구하겠다는 말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성이 도출되었던 고려사의 뜻 깊은 유적지-유물-유래를 그때의 역사 현장에 고스란히 품고 있는 지역이 그리 흔하겠는가. 앞으로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이 완성되는 날이 오면... 현장답사 후에 작품 제작으로 홍보 파급 효과를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국, 내외 문화예술인들의 ‘안동시-역사문화탐방’의 발걸음이 잦아질 것이라 예측된다.

2단계 계획실행: 2023년 11월 25일,

능동 재사 ‘시조 추향제’ 참석

내친김에 지난 초겨울에 있는, 능동 ‘시조 추향제(欸享祭)’에도 생애 처음으로 참석했다. 시화제작을 위해서 ‘병산대첩’ 현지의 사진을 보내주신 7촌 아재의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들었다. 85세의 권경웅(대종회 부회장) 어르신께서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제례 격식 및 참례 의식이 바뀐지를 살펴보고 계신 듯했다. 반가운 마음에 그 어르신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서, 지난 달 안동탐방 시에 ‘태사묘’ 유래에 관해서 시청 가이드보다 더 상세히 설명해주신 점과 병산대첩 유적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신 공로에 대해 거듭 감사드렸다.

내 성장기에 조부님께서 태사묘, 능동, 달실(달실마을), 청도·등 문중 행사에 다녀오시면, 호기심 많은 둘째 손녀인 내가 궁금해 하는 점을 재미있게 설명해주곤 하셨다. 몹시도 와보고 싶었지만 딸로 태어난 부당(不當)한 원죄로 인해, ‘태사묘’란 비밀의 성을 이제야 찾아왔다는 감회에 젖어서, 조부님(별세)과 부친(생존)의 발자국이 깊숙이 남은 재사(齋舍) 곳곳을 숙연한 심정으로 세세히 둘러봤다.

예상 밖의 작은 규모와 수리공사 지연으로 인한 어슬픈 능동 성지 광경이 처연하고 안타까웠다. 근세 들어서, 영리한 후손들이 앞장서서 각 정권의 주요정책 및 역사문화관광산업과 연계시켜, 정부 해당 부처와 지자체 예산을 풍족히 지원받아서, 문중(또는 한 인물)의 성지를 거장하게 발굴-조성-단장해서 관광단지화 시킨 몇몇 문중의 유적지가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우리 집안 어르신들도 그러했지만, 안동권씨 후손들은 대체로 자신과 몸담은 공동체의 사익(私益) 추구를 위해서는 그 어디에도 손 벌리지 싫어하는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가 대다수다. 그러기에 문중의 자체 회비나 수입만으로는 선조님들 성지를 뜻대로 조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긴 세월 앞장서서 일해오신 지역중진회, 대중회 임원분들의 고심과 노고가 크셨을 것이란 생각이 고개가 숙여졌다.

제물(祭物)을 심은 리어카를 따라 천천히 발길을 옮긴, 재사(齋舍) 앞산 숲속에 자리한 권행 시조님의 묘역과 묘소는 예스러움을 그대로 간직한 듯해서 오히려 싱겁게 보였다. 그 곳에 오르니 핏줄의 당김으로 저절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긍심과 자존감이 되살아났다.

시화를 제작하면서 멀리서 상상으로 당신의 지혜와 용맹한 충성심을 간신히 표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당신의 묘소를 직접 참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감격스럽다는 내 심정을 시조님께 고해 올렸다. 또한 견훤 장군의 고장에서 전시된 ‘병산대첩’ 시화에서, 가장 넘처나고 멋진 모습으로 그려진 장군님이, 안동권문 후손들의 자랑인 당신임을 자상히 보고 드렸다.

3단계 계획실행: 2024년 1월 5일, ‘한맥문학’ 편집실과 작품(2점) 발표 합의

안동권문의 후에 작가들로 구성된 ‘태사문학’이 근래 창간되어 올해 초봄에 동인지 3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뿌리공원에 전시됐던 ‘병산대첩’ 시화와 ‘태사묘 문턱을 넘으려’ 내가 쓴 장시(長詩)를 신고자 하였으나, 아직은 제반 여건이 어려워져 컬러작품 게재가 불가하다 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이사로 활동하는 ‘한맥문학’ 편집실과 협의하여, ‘한맥문학’(2월호)에 컬러 인쇄로 게재해주겠다는 허락을 받아두었다.

한맥 2월호가 발간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기사가 실릴 안동권씨 종보(2월호)와 함께 종진회 및 안동시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리고 ‘병산대첩 유적지’부터 발굴-조성해야 하는 당위성과 사업 완료 후의 기대 효과 및 미래의 청사진을 널리 홍보해 나가면서, 그 사업에 대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4단계 계획실행: 2024년 1월 9일, 서울 소재 [안동권씨대중회] 사무실 방문

능동 재사 시조 추향제에 참석하고서, 전국 [안동중씨대중회]의 역할과 사무실 소재지를 알게 되었다. ‘병산대첩’ 시화 관련 얘기를 들으신 ‘안동권씨종보’ 편집국장께서, 그 작품전시회와 관련된 기사를 종보(2월호)에 실으면 좋겠다고 제의하셨다. 종보에 기사화하는 것이 안동 현장과 죽친들께 파급되는 홍보 효과가 더 크겠다고 싶어서 나도 찬성했다. 현재 인터넷신문 기자, 수필가, 시인으로 글을 쓰고 있는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지난 1월호 종보를 받아보고, 2024년 올해가 ‘안동권씨 1100년 준비원년의 해’, ‘안동권문 새 천년의 시작’임을 권영창 대중회 회장의 신년 인사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즉 대중회 올해의 사업목표 다섯째 항목인 [능동재사일대 유적지벨트화 및 역사문화관광지 조성사업]과 내가 지금껏 구상해왔던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 아이디어가 너무나 상통하기에 이심전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중회의 계획은 능동일대만 관련 문중들이 주축이 되어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의 구상은 안동지역에 산재해있는 고려사 주요유적지를 광역벨트화 하자는 것이다.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하여 지자체 및 관련자들의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에, 위에서 언급한 몇몇 문중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내어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물론 그 사업 진행단계마다 ‘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 문중 대중회와의 협의 및 협조를 얻어 사업을 완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나긴 세월 동안 안동지역의 선거관에서, 삼태사 문중 특히 안동권문의 표를 받지 못하면 선거에 당선될 수 없다는 자타공인의 설이 있다고들 한다. 그간 그렇게 선출된 수많은 당선자들이, 삼태사 및 안동권문 유적지 조성에는 왜 이리 무관심했으며, 아바한 예산지원 탓에 소규모 사업조차 제대로 진척시킬 수 없었다는 역사별의 의구심을 야기 시켰는지..., 권씨문중의 일원인 나로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은근히 부아가났다.

5단계 계획실행: 2024년 1월 22일, ‘안동권씨 대중회’ 재방문

대중회 사무실에 작성한 기사를 들고 가서 권행환 편집국장님과 논의했다. ‘병산대첩’ 시화 제작을 시작으로, 위 사업목표를 염두에 두고 단계별로 실천해오던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쓰고서 관련된 그림, 사진을 병행해서 기사를 신기로 했다.

이쯤에서 내가 그동안 구상해 온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 계획을 간략히 제시하려 한다. 먼저 ‘안동’이란 지명과, 안동을 원뿌리로 하는 본관 문중의 죽친 및 모든 안동인의 원천(源泉)은, ‘경북 안동시 와룡면 서지리’ 소재인 ‘병산대첩 유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

에 연계해야 할 대상 유적지는 다음과 같다.

[병산대첩 유적지-태사묘-영호루-계미원-봉정사-능동일대 삼태사 재사(시조 묘역 포함) 및 종택] 등이다.

위 대상 유적지가 500년 고려사의 주요 유적지임을 증거 하는 사료 및 발굴 조성방안과 각 사적지의 독창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추후 대중회와 안동시 측의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사업 실행단계에서 지문할 계획이다.

위의 광역벨트 대상 유적지는 모두, 내 일상사(결혼 전까지)의 직접 체험장이었기에 행복만 추억거리가 많은 만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꿈에도 잊지 못할 내 고향땅의 고려시대 유산이다.

그곳엔 아직도 내 고향집과 선산, 조상님이 물려주신 임야와 토지가 남아있고, 행복했던 내 성장기의 삶을 공유했던 많은 친·인척들과 친구들이 있기에, 배태고 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와 그 땅의 선조들의 발자취마저 나는 소중히 간직하고 싶다.

그러므로 나는 [안동시-고려사유적광역벨트 조성사업]을 오래전부터 가슴에 두고 기회를 엿보며 살아왔다. 이제야 그 사업을 꽃피워 열매 맺을 수 있는 역사문화예술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생각에, 안동권씨 대중회(족친 100만명) 종보를 통해 가장 먼저 그 사업의 취지를 알려드리려 한다. 물론 권태운 회장님과 매사 협의 하에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종친님들께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서울-전주는 조선시대, 경주는 신라시대, 광주-부여는 백제시대 역사의 기반 위에 토대를 쌓고 발전한 과거-현대 역사의 연계 도시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동시가, 과거-현재-미래까지를 연계 관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미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를 표방할까 마땅할까? 정답은 역시 고려시대다. 지금부터 안동시가, 한반도 역사의 중추(中軸)으로 한 민족 통일을 이루고 살던 고려사를 바탕으로 역사문화관광도시화를 성공시킨다면..., 후세의 주인공들에게 타인편승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매력을 보인다면서..., 지자체의 소멸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자유통일의 그날이 오면..., 안동-개성은 고려사 유적의 단짝 전시장! 국내·외의 일반 관광객은 물론 실용민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고려인 후예들과 교포들이 가장 와보고 싶어 하는 여행지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끝으로 미래지향의 선진도시가 될 [안동시]의 발전과 [안동권씨대중회]의 변명을 기원드리며, 위 사업에 대한 나의 구상과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이 글을 맺는다.



계미원 석불(보물 제115호)



봉정사 대웅전(국보 제311호)



시조 태사공 묘소(안동시 문화유산 124호)

■ 약력

※2013년 ‘수필과비평’ 신인상(수필) 2020년 아시아리더대상(문화예술발전부문) 2021년 ‘한맥문학’ 신인상(시) ※수필과비평작가회, 한맥문학가협회, 원석문학회, 태사문학회, 수향회, 오우회 ※진주동학교 교사(’2010년) 현수필가, 시인, 소리꾼, 화가, 기자